

# welcron<sup>+</sup>in

2013 SPRING Vol.04 웰크론그룹 사보 '웰크론인'



WELCRON

(주)웰크론  
(주)웰크론강원  
(주)웰크론한텍  
(주)웰크론헬스케어





## 회사는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회사를 키운다

진정한 인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인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이른바 ‘S.P.E.C’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실성(Sincerity), 전문성(Professionality), 실무능력(Executive ability), 창의성(Creativity)이 그것입니다.  
학벌이나 자격증, 토익점수보다 먼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물론 전문성이나 실무능력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에 대한 열정은 그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고 실제로 만들어주는 진짜 힘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어학 점수가 몇 점이고 또 어떤 대학을 나와 해외연수는 다녀왔는가 하는 결과론적인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분야에서의 열정과 만나지 못한다면 전문성은 발휘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요.

진정한 프로는 1%의 필요와 99%의 노력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프로가 되려는 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남들이 다 하는 자기 계발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업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부터가 시작입니다.

2013 **SPRING** Vol.04

welcron그룹 사보‘welcron인’



**표지 이야기**  
좌측부터  
welcron강원 기술본부 서제형 대리  
welcron한텍 경영기획본부 김은지 사원  
welcron헬스케어 재경본부 한승현 계장  
welcron 영업본부 권형준 사원

발행일 2013년 6월 5일(통권 제4호)  
발행인 이영규  
발행처 welcron그룹 기획조정실 홍보IR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  
tel. 02.2107.6742 / fax 02.539.8115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tel. 02.2268.2304  
인쇄 은성D&P  
tel. 02.461.0313

## contents

### Hello! Welcron

- 04 **Special Theme 01**  
비틀즈와 들국화에서 배우는 조직 내 인재의 다양성
- 06 **Special Theme 02**  
welcron그룹의 인재를 말하다
- 10 **Theme research**  
welcron그룹의 인재경영에 대해 사우들에게 묻는다
- 12 **Focus**  
2013년 welcron그룹 워크숍, 체육대회

### Welcron group & Story

- 16 **Zoom in Story 01**  
welcron한텍,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 협기성 폐수처리설비
- 20 **Zoom in Story 02**  
welcron강원 기술본부 전기계장팀 정지원 수석부장, 한만진 사원
- 24 **우리는 패밀리**  
welcron헬스케어 마케팅본부
- 28 **찰칵! 현장 스케치 01**  
welcron ‘고객감사 창고대개방전’ 현장
- 30 **행복을 파는 가게**  
세사리빙 인천검단점, 세사 경기점
- 32 **찰칵! 현장 스케치 02**  
welcron글로벌비나 개업식 현장
- 34 **생생 가족여행**  
welcron 정성식 상무 가족
- 38 **세계를 가다**  
그룹미래전략본부, welcron그룹의 미래를 밝힌다!
- 40 **탐방 인사이드**  
welcron강원 신축 기숙사 탐방

### Green Life

- 42 **따뜻한 시선**  
세사리빙 음이온 침구 고객체험 수기
- 44 **Money & Trend**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 46 **News**
- 50 **빨간우체통**



Special Theme 1

# 획일적인 스펙? 창의력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재 등용

－ 비틀즈와 들국화에서 배우는 조직 내 인재의 다양성

왜 <무한도전>이나 <박2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는 여러 명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혼재할까.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겹치는 캐릭터는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최근 변화하는 조직에서도 똑같이 요구된다. 이른바 ‘조직 내 인재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비슷비슷한 스펙을 가진 직원들만 으로는 창의적인 발상들과, 그 다양한 발상들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자신만의 캐릭터로 승부하라

어딘지 까칠한 박명수, 바보같은 정준하, 어린이 같은 하하, 배신의 아이콘 노홍철, 미친 존재감 정형돈과 심지어 예능이 버거운 길까지, 만나기만 하면 사사건건 부딪치고 싸우는 캐릭터들이지만 거기에는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있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정한다. 사실 어찌 보면 <무한도전>의 이 구성은 기가 막힌 조합이다. 이 부딪힘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툭툭 쏟아져 나올 때 시청자들은 열광하니 말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빠! 어디가?> 같이 아이들이 주인공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또 <진짜 사나이> 같은 재입대를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 캐릭터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뭐 하나 겹치는 구석이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조직의 힘이 바로 그 다양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 스펙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최근 이른바 ‘조직다양성’은 획일화된 인재상을 벗어나 새로운 조직문화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조직이 원하는 것은 과거 군대처럼(사실 요즘은 군대도 다양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을 정도) 똑같은 인물들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와 세대, 성별, 국적은 물론이고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조직으로 묶여서 서로 다른 의견들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때 그 조직이 비로소 창의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긍정적인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가능하다. <무한도전>이 제 아무리 다채로운 캐릭터를 갖고 있어도 유재석 같은 협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 ‘조직다양성’은 그런 점에서

이제 기업의 인재들은  
‘따로 또 같이’에 능해야 한다.  
따로 저마다 가진  
창의적인 발상들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마련해야 한다.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잘 운용된다면 창의력과 혁신이 여기서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조직은 자칫 모래알처럼 부서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다양성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과거식의 스펙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특별함을 요구한다.

## 정해진 정답이 아닌 새로운 답을 원하는 시대

다양성 시대의 인재상으로 흔히들 T자형, A자형, I자형 인재상을 말한다. 글자 모양에서 그 의미를 따온 것으로 T자형은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가로서 향후 차츰 그 영역을 넓혀가는 인재, A자형은 한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타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인재, I자형은 인성과 기초 위에 전문성을 세우는 인재를 말한다. 어느 인재상이든 결국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최근 조직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문제해결 방법이다. “당신 몸이 점점 줄어 동전 크기만 해졌는데 믹서기에 빠져버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구글의 면접시험 문제는 지금 조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러한 엉뚱한 질문의 목적은 정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해법을 듣고자 함이다. 이것은 기업의 성장이 어떤 정해진 답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작금의 경제 환경이 만들어낸 요구사항이다. 엉뚱하지만 기발하고 재미있는 창의력이 단순하고 재미없는 정답보다 낫다는 얘기다.

## 창의력을 조합하는 팀워크의 필요성

하지만 ‘조직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창의적인 팀워크다. 앞서 말한 대로 ‘조직다양성’이 가진 양날의 검을 뛰어넘은 후에야 그 힘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비틀즈라고 불리는 들국화는 바로 이 창의적인 팀워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록그룹이다. 비틀즈에 폴 매카트니와 존 레논이 있다면 들국화에는 최성원과 전인권이 있다. 최성원이 작곡을 하면 전인권은 노래를 부르고 주찬권은 여기에 비트를 넣는다. 저마다 각자 분야와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지만 이들이 함께 만든 곡이 이른바 전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다르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팀워크가 있어서이다.

이제 기업의 인재들은 ‘따로 또 같이’에 능해야 한다. 따로 저마다 가진 창의적인 발상들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따로’ 가진 최대의 다른 장점이 ‘또 같이’ 모여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 기업은 비로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다양성을 차별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시각, 나아가 그 다양성을 즐기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 기업은 오래도록 살아남는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비틀즈가 그랬고 들국화가 그런 것처럼.



Special Theme 2

# 내일을 위한 그들의 커피타임 웰크론그룹의 인재를 말하다

남녀사이가 얼마나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궁합. 과연 남녀사이만의 일일까.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하려면 그만큼 회사의 모토와 인재와의 궁합도 중요하다. 인재를 양성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웰크론그룹은 과연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할까. 웰크론그룹의 각 사 임직원을 대표해 이야기를 나눴다.



웰크론그룹 기획조정실 이윤무 상무

인재로서의 평가는 업무 적합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그룹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자기평가는 별 4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회장님보다 조금 못생긴 것이 아닐까요?

인재점수 ★★★★★



웰크론한텍 경영기획본부 이정아 과장

웰크론한텍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저는 창조적 정신과 공부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쉽지만 별 3개로 만족하겠습니다.

인재점수 ★★★★★



웰크론 응용제품연구팀 권은희 차장

14년간 첫 직장으로서 웰크론과 만난 후 여러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별 1개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인재점수 ★★★★★



웰크론헬스케어 신유통팀 승환준 회장

저는 신유통팀의 팀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5개를 주고 싶습니다!!

인재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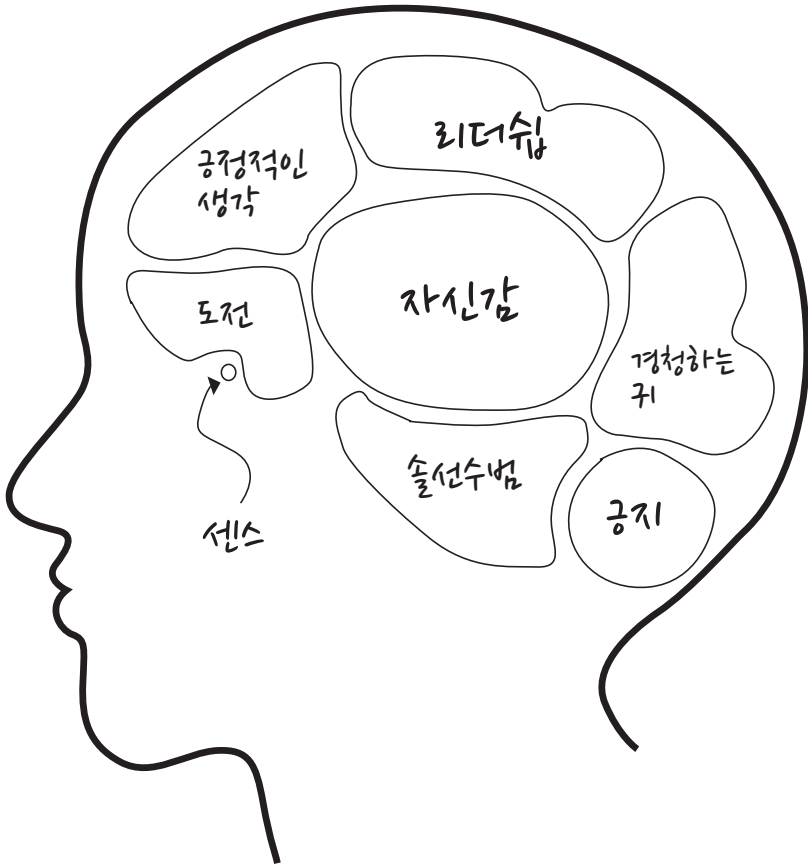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최주호 사원

웰크론강원에서 산업정보일려의 설계를 하고 있는 저는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일과 도전하고 싶은 일이 많기에 별 1개를 비워두고 차근차근 채우고 싶습니다.

인재점수 ★★★★★

## 웰크론그룹 인재의 조건





## 웰크론그룹 인재에 대한 5인의 Fun Fun한 대화!

1. 웰크론그룹이 더 큰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2. 기업적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할까요?
3. 기업과 인재의 동반성장을 위해 앞으로 웰크론인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웰크론그룹이 추구해야 할 인재경영 포인트를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 이정아 과장

인재란 **양파**다.

까도 까도 매력 넘치는 사람을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1. 웰크론그룹의 인재라면 꿈은 어때요? 뭔가 진득하니 믿음직스럽고 뭐든 맡기면 책임감있게 잘 해결할 것 같아요. 꿈같은 인재 아닐까요?
2. 회사의 모토와 부합하며 성장을 위한 자질이 풍부한 사원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다들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와 같이 호흡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3. 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갖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 이윤무 상무

인재란 **교차로**다.

조직과 업무라는 두개의 트랙에서 병목없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1. 호랑이 같은 인재라고나 할까요? 호랑이는 존재 그 자체가 동물 조직 사회에서의 균형을 이루며, 필요 이상의 사냥에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2. 기업은 끊임없이 조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며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웰크론이 함께 웃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가족 같은 회사로 여겨질 때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진정한 웰크론인이 되기까지 인내하며 소통하고 서로가 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손과 머리가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4.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부로의 말 한마디가 인재로 키울 수 있고 책망의 말 한마디가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08

### 권은희 차장

인재란 **사계절**이다.

변화에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코끼리는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사냥의 위협에 놓이면 사속 40km 이상의 속도를 내어 달아납니다. 웰크론그룹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코끼리와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성장가능성이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에 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소통은 연속성이 있어야 인재와 회사의 시너지가 발휘될 것입니다.
3. 회사의 목표와 인재의 목표가 일치되어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목표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혼선이 많아 결국 탈락하는 인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멀리 보는 새가 높입니다.

### 승환준 계장

인재란 **돈**이다.

뛰어난 인재가 곧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죠.

1. 늑대는 호기심이 많으며, 협동심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웰크론그룹에도 새로운 도전에 호기심을 보이고 동료들과 협동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의 관련업종과 상품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연수나 박람회 견학 같은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3. 내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일을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내는 자세가 회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4.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인디언 속담-

### 최주호 사원

인재란 **경쟁력**이다.

인재를 얼마나 잘 육성하느냐에 회사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1. 동화 '개미와 베짖이'를 보면 개미는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열정적인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런 개미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2. 신입사원들이 웰크론그룹의 기업 문화에 잘 적응하고 업무를 익히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직급에 따른 맞춤 교육을 통해 더욱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팀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 업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힘든 점은 없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표현한다면 웰크론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4.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웰크론인 모두가 소중한 인재이자 자원이 아닐까요?

09 • 2013 Welc@n in SPRING





웰크론인 대답해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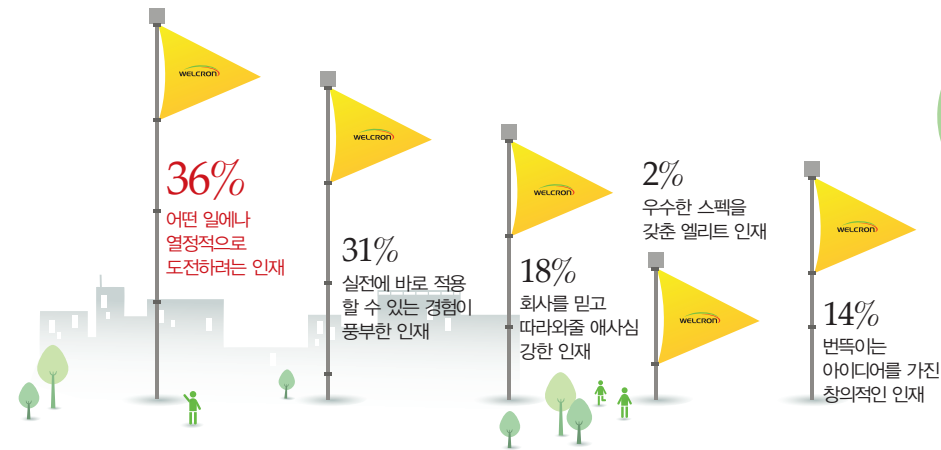
## 웰크론그룹의 인재경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기업들의 인재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웰크론인들의 인재경영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설문참여인원 : 4개사 234명〉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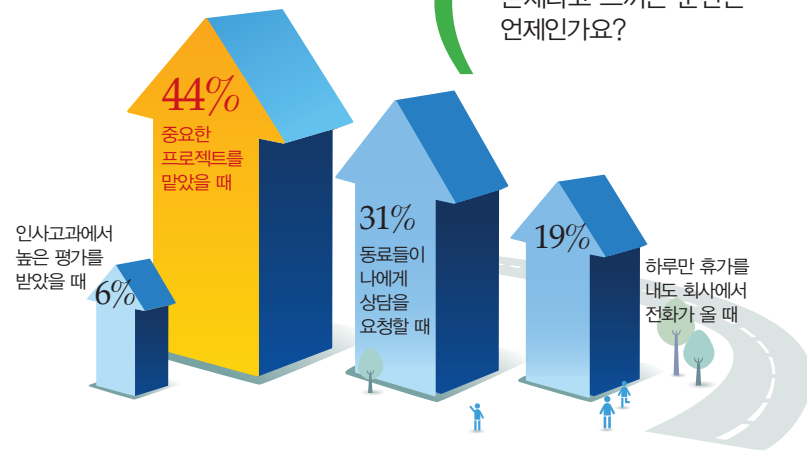
지금 웰크론그룹에  
가장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열정과 도전정신이 없다면  
늘 제자리에 머물게  
되겠죠?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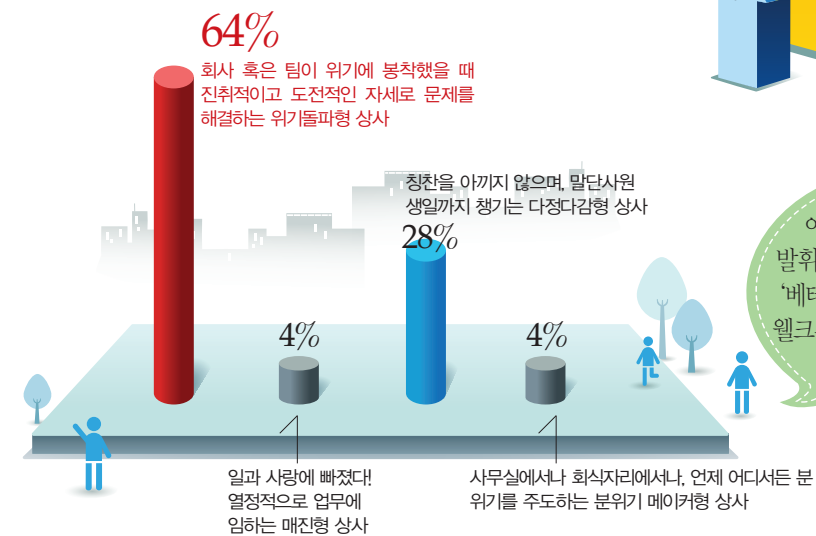
내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 진정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웰크론그룹의 '베테랑'은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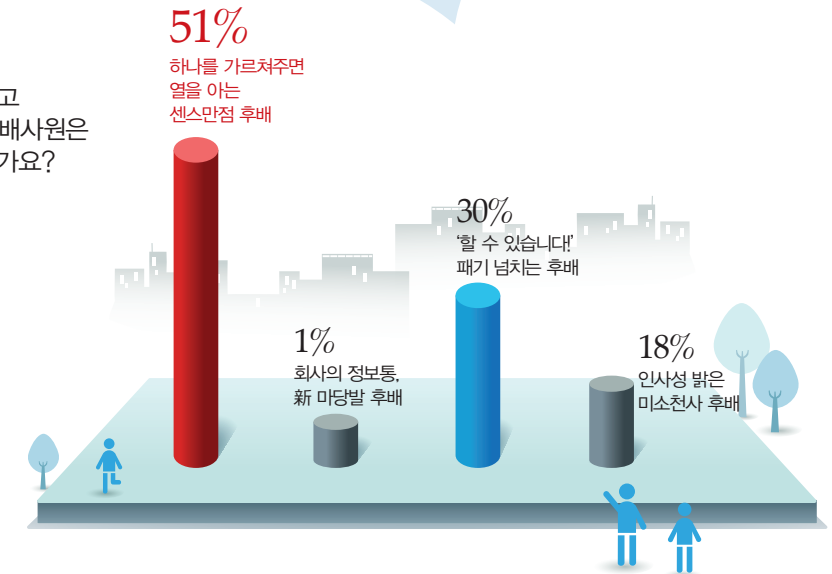
03

내가 본받고 싶은  
최고의 상사는  
어떤 유형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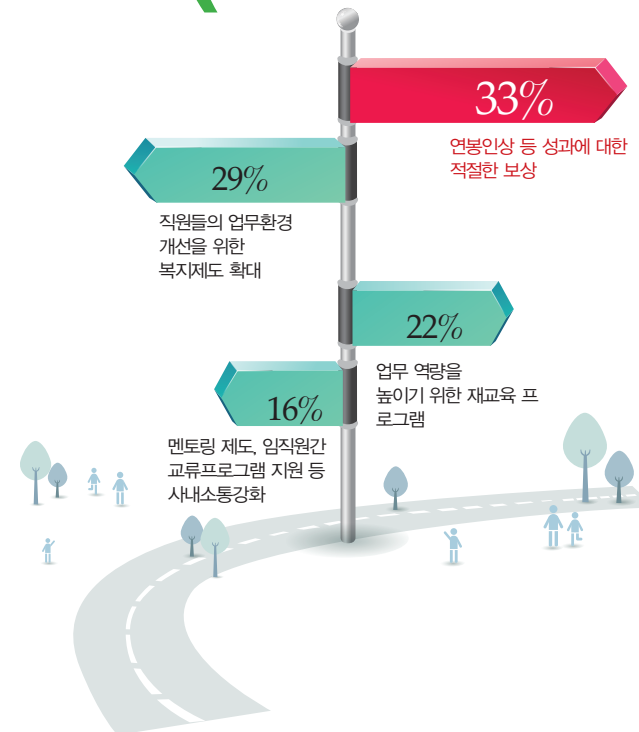
04

내가 인재라고  
인정하는 후배사원은  
어떤 유형인가요?



05

회사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한 만큼  
적당한 보상을 받는다면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도 또한  
당달아 높아지겠죠?

인재경영으로  
또 다른  
도약을 시도하는  
웰크론그룹에게 보내는  
한 줄의 메시지

-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웰크론인 파이팅입니다!
-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중심으로 미래의 웰크론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 현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의 인재경영을 통해 다 함께 발전해 나가는 웰크론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신의 능력만 믿고 주어진 일,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인재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존중할 줄 아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 내 가정같이 따뜻하고 푸근한 직장이 최고의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 인재경영은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인재(직원)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 나의 상사를, 나의 동기를, 나의 후배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아침이 기다려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일 것입니다.



## 웰크론인이여 오늘을 발판으로 내일 더 힘차게!

지난 5월 2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웰크론그룹의 합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급 워크숍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연이어 진행된 것이다. 웰크론그룹 임직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빛났던 이틀간의 여정을 들여다보자.

### 웰크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다

첫째 날인 24일, 2022년 비전\*공유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급 워크숍이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원부터 과장급 직원 266명이 참가해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기업발전을 위한 혁신 및 창조전략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웰크론그룹의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우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별 활동에서는 네나 할 것 없이 바닥에 동글게 모여 앉아 토의하는 진풍경을 연출, 웰크론그룹의 화합정신을 보여줬다.

긴 시간 이어진 강의에 지칠 법도 하건만 사우들은 끊임없이 중요내용을 필기하고, 강사들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워크숍에 참여, 강사들로부터 ‘역시 웰크론’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화합의 장’ 시간에도 4개사 직원들이 한데 어울려 건배를 외치고 담소를 나누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룬 가운데 숨가뻐했던 워크숍 일정이 마무리됐다.

\* 웰크론그룹은 2022년까지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 시가총액 2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과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기업비전을 발표했다.

Focus 02  
2013년  
웰크론그룹  
워크숍

웰크론한텍 플랜트사업본부 플랜트영업부 영업지원팀

### 강성주 사원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특히나 긍정조직문화 만들기 강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로는 익히 들어왔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나 입사지원서에 썼던 다짐과 각오를 되새기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 동료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Focus 02  
2013년  
웰크론그룹  
체육대회

###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웰크론 체육대회

다음 날인 25일, 4개사 전 임직원이 참가하는 ‘2013 웰크론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오전 8시 40분 이영규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축구·축구·발야구·피구 등 구기종목대회, 박터트리기·추억의 오재미 놀기·단체줄넘기·줄다리기·계주 등 명랑체육대회와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무더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웰크론인들은 각 팀별로 큰소리로 응원하며 즐거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갔다. 이 밖에도 축구선수 김태희 씨의 프리스타일 공연이 진행됐으며, 치어리더의 응원이 더해져 체육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박터트리기와 단체줄넘기, 계주가 시작되자 웰크론인들은 운동장 한 가운데 모여 앉아 본격적인 응원전에 나섰다. 막대풍선을 흔들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고, 참가선수들은 그에 보답하듯 젖먹던 힘까지 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보여줬다.

이날 체육대회 종합우승은 웰크론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웰크론강원, 3등과 4등은 각각 웰크론한텍과 웰크론헬스케어에게 돌아갔다. 종목별 MVP로는 축구에 웰크론헬스케어 오정연 대리, 피구에는 웰크론 윤선정 주임과 웰크론강원 박하연 사원, 발야구에 웰크론강원 장지혜 계장, 족구에 웰크론한텍 신봉재 부장이 선정됐다.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

### 전창락 부장

평소에도 사원들과 축구를 종종 즐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웰크론그룹 체육대회에서 전 사원들과 부딪히며 필드를 뛰니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팀에서 미드필더로서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서 서포트하는 ‘허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경영지원본부 부장으로서 사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웰크론강원 파이팅입니다.







### 끼와 열정으로 무장한 웰크론인들이 나가신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장기자랑에서는 웰크론인들이 각종 장기를 선보이며 그야말로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복고댄스와 그에 어울리는 의상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센스를 보이는가 하면 우스꽝스런 가면을 쓰고 코믹댄스를 추는 모습에 관객석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반면 말쑥하게 잘 차려입은 선남선녀들의 세련된 무대매너에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영규 회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심사하는 것도 잠시 잊은 채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바빴다.

이날 1등은 3곡의 노래에 맞춰 멋진 댄스를 선보인 웰크론 김동언 사원 외 7명에게, 2등은 싸이의 전설댄 안무를 완벽구현한 웰크론강원의 이종식 사원 외 9명, 3등은 코믹댄스로 인기몰이를 한 웰크론강원 우대우 사원 외 4명에게 돌아갔으며, 4등은 율랄라세션 못지 않은 신나는 군무를 춘 웰크론 이동건 주임 외 4명이 차지했다.



## 웰크론인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웰크론 이경주 사장(좌)과 그룹미래전략본부 권우현 부장(우)이 이영규 회장(가운데)과 우승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웰크론헬스케어 생산팀

## 김민경

사원

우리 웰크론헬스케어의 우승을 위해 목이 터져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준 웰크론헬스케어가 이번 2013 웰크론 체육대회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구 우승을 통해 웰크론헬스케어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웰크론헬스케어 힘 내세요~ 웰크론헬스케어 파이팅, 웰크론그룹 최고!!



웰크론그룹 기획조정실

## 한슬기

주임

몇 개월 전부터 이번 2013 웰크론그룹 한마음 체육대회의 기획과 진행을 맡아 준비해왔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맡아 신경을 게한 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오늘 웰크론인들이 함께 땀 흘리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웰크론그룹의 단합된 모습도 좋지만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웰크론인 모두 상반기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이 뛰어 오릅시다.^^





웰크론한텍 물환경사업부 환경팀,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 혐기성 폐수처리설비

# 버려지는 폐수를 친환경바이오 에너지로

공장의 수많은 설비를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레 발생하는 폐수는 늘 골칫덩이일 수밖에 없다.  
폐수가 그대로 배출되면 엄청난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기때문에  
거의 모든 공장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폐수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골칫덩이로만 치부되던 폐수처리 과정도  
웰크론한텍의 기술과 만나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단다.  
공장의 치부로 여겨지던 폐수처리를  
친환경 수익 시설로 만드는 놀라운 현장을 만나보자.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전경

## 국내 식품소재산업을 선도하는 (주)삼양제넥스의 울산공장

(주)삼양제넥스는 최신의 전분당 제조기술과 설비를 이용해 전분, 전분당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포도당, 물엿, 과당, 일반전분, 올리고당 등이 있으며 식품업계를 비롯 제약, 제지, 섬유, 화장품 업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의 특징상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폐수처리설비를 웰크론한텍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물론 기존의 폐수처리설비가 있었지만, 설비 자체가 노후돼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웰크론한텍의 폐수처리설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폐수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은 곧잘 ‘공장의 화장실’로 치부되곤 한다. 친환경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까지 많은 공장들이 생산시설은 공개했어도 폐수처리시설은 철저히 감출만큼 민감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은 오히려 드러내고 싶은 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번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에 설치하게 된 폐수처리시설은 혐기성 소화조라고 불리는 친환경 설비다. 혐기성 소화조란 쉽게 말해 폐수처리 과정에 친환경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정화하는 시설로, 약품사용을 최소화하고 폐수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혐기성 미생물과 고농도 폐수의 화학작용으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 설비다.

이 설비를 통해 (주)삼양제넥스에서 발생하는 폐수전량과 관계사인 (주)삼양사의 고농도 폐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1일 20,000kg의 유기성 폐수를 처리하고, 8,000N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하나의 설비로 폐수는 없애고 바이오가스를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알고 보면 더욱 가치 있는 혐기성 소화조 시설

이번에 설치한 혐기성 소화조는 웰크론한텍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최신 설비다. 여러가지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기존 설비보다 뛰어날뿐만 아니라 후단 공정의 운전을 안정화해 약품사용량, 폐슬러지 처리비 등 운전 유지비의 감소 효과가 있다. 또한 극대화된 자기제어능력은 고품질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원폐수의 혼합 목적으로 설치되던 동력장치를 빼고, 자연 순환형 혼합식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에너지는 절약하고 경쟁력은 높였다.

이러한 기술 집약적 설비를 통해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의 혐기성 소화조 시설은 바이오가스의 연료로써 연간 16.6억 원의 LNG 대체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 처리시설보다 부지 이용률을 50% 이하로 낮춰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주)삼양제넥스 김영훈 부장에 따르면, 약품 소모량 감소에 따른 절감효과 또한 연간 1.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혐기성 소화조는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후단 공정의 운전을 안정화하여  
약품사용량 감소,  
폐슬러지 처리비 감소 등  
운전 유지비 감소 효과가 있다.



## 최정에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오다

이번 설비는 웰크론한텍 물환경사업부 환경팀이 담당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웰크론한텍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오랜시간 준비했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보다는 최정에 인력의 투입을 통해 그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이번 시설의 핵심적인 사항을 통달하고 있는 환경팀 팀장 정형숙 상무를 주축으로, 베테랑 인력인 이철승 차장과 이병환 과장이 투입됐다.

이들 모두 이 분야에 정통한 이들로 공사 기간 동안 최상의 팀워크를 보이며 일당백의 능력을 발휘, 설비를 성공적으로 완공해 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계기로 웰크론한텍 물환경사업부 환경팀은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시설 설비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주)삼양제넥스 울산공장 혐기성 폐수처리설비 제작설치 공사

#### 정식명칭

BIOPAQ IC Reactor

#### 시설크기

원형 탱크로 직경 8m, 높이 24m, 탱크 용량 1,200m³다.

#### 처리량

유기물부하량 기준 1일 20,000kg 의 폐수를 안정화함.

#### 공사기간

10개월

#### 완공일

2013년 4월

## interview

### 물환경사업부 환경팀 **이 병 환** 과장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에 설치한 혐기성 소화조 설비 공사에는 소수의 최정에 인력만이 투입됐습니다. 팀워크와 서로간의 배려를 통해 팀원 모두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려 노력했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시설설비 최적화 및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회사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전기계장팀 정지원 수석부장, 한만진 사원

## 발전소의 심장을 만든다

발전소는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있어야 또 다른 공장들이 운영될 수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발전소 또한 그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할 터.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웰크론강원의 보일러다. 이렇게 막중한 프로젝트에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선후배가 함께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기지개를 켜는 울춘산업단지의 핵심시설 울춘복합화력발전소

전남 순천시 일대에 조성 중인 울춘 제1지방산업단지는 전남 지방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산업단지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많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막대한 전력량을 감당해 내기 위해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도 필수적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MPC울춘전력이 총 공사금액 7천여 억 원을 투입하는 민간발전소건설공사로 울춘복합화력발전소의 1호기 옆에 시공되며 2014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울춘복합화력발전소 발전용량은 946MW로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쓰는 국내 첫 고효율 저공해 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발전소의 건설은 현대건설이 담당하고 발전소 내 전력 생산 관련 설비는 미쓰비시가 참여했다. 그리고 미쓰비시가 담당한 전력 생산 관련 설비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일러 설비를 바로 웰크론강원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신·구의 조화

이번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웰크론강원은 기술본부 전기계장팀의 정지원 수석부장을 담당자로 현지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전기계장팀 신입사원 3명 중 한만진 사원이 신입사원 교육 차원에서 시운전 지원에 합류하게 되었다.

최고의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정지원 수석부장과 이제 갓 웰크론인으로 첫발을 내딛 한만진 사원이 한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선배와 후배 사이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어려운 법. 하지만 정지원 수석부장은 이러한 후배의 사정을 잘 알기에 업무에서는 매뉴얼대로 착실히 지시를 내리며, 현장경험을 토대로 얻은 크고 작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그리고 업무 이후의 시간에는 맥주 한 잔의 여유를 함께 나누며, 힘들어 하는 후배를 따뜻하게 챙겼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하루 이틀 진행 되는 사이에 어느덧 두 사람의 팀워크는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손발이 척척 맞아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눈빛만으로도 업무 전달이 가능할 만큼의 사이가 되자,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팀워크 덕분인지 아무런 사고 없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interview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전기계장팀 **정지원** 수석부장

이번 프로젝트는 발주처,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준공 기간 내에 보일러 기능이 문제없이 운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생하신 사업부 및 기술부를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웰크론강원이 공급하는 기기에 대하여, 항상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울춘복합화력발전소 스팀보일러 설비

##### 정식명칭

Boiler, Economizer, Burner, F.D Fan, Deaerator, Feed Water Pump

##### Boiler 용량

23t/h × 2sets

##### 발주처

울춘MPC → 현대 건설 → 미쓰비시 → 웰크론강원

##### 공사기간

2012. 01. 05(발주일) ~ 2013. 04. 20  
(시운전, 종료시점) ~ 2013. 05. 30(철수일)

##### 수주금액

3,800,000 USD

## 발전소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원천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여타의 발전소 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보일러 가동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대형 터빈을 가동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웰크론강원이 담당하는 스팀보일러다. 전력생산과 관련된 시설은 기술력이 높은 미쓰비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보일러 관련 설비 만큼은 미쓰비시도 웰크론강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터였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미쓰비시와의 첫 거래로써 미쓰비시의 설계 변경 요구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과의 작업이기 때문에 도면작업과 소통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 상호 협조한 결과, 전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일정에 맞춰 설비의 시운전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미쓰비시의 무한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일이 되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대형 터빈을 가동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웰크론강원이 담당하는 스팀보일러다.

### interview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전기계장팀 **한 만 진** 사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웰크론강원의 여러 부서가 땀 흘려 공급하는 보일러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신입사원 교육 때 본 '마스터&커맨더'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함선이 침몰하지 않고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수많은 선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일러에 대해 이제 겨우 빙산의 일각을 본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을 많이 있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배우며 회사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밑거름

울춘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공정은 올해 6월 30일 1차분 건설이 끝나고 내년 6월 30일에 2차분 건설이 완료된다. 물론 웰크론강원의 경우는 올해 5월 30일 철수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게 된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손길이 여전히 바쁘다. 현재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본부 전기계장팀 정지원 수석부장은 일이 마무리 되는데로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고 한만진 사원은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보조보일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일의 성과를 발판으로 더 큰 세계 시장을 향해 문을 두드릴 예정이라는 웰크론강원의 내일이 주목된다.



웰크론헬스케어 마케팅본부

## 소비자가 웃으면 우리도 웃는다 뛰어라! 고객만족을 위해!

여성 위생용품 전문 브랜드인 예지미인의 제품 기획과 개발, 광고, 이벤트, 리서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웰크론헬스케어의 마케팅본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홈쇼핑과 같은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과 가깝게 호흡하며 고객만족을 외치는 그들을 소개한다.

###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빛나는 마케팅본부의 힘

웰크론헬스케어 주력 상품은 여성의 필수품, 생리대다. 고정적인 수요로 안정적인 시장처럼 보이지만 유한킴벌리, LG생활건강 등의 국내 대기업과 P&G와 같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마케팅 역량이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

웰크론헬스케어 마케팅본부는 국내 최초 한방생리대 예지미인 생리대부터 대표상품인 '좌흔썩썩질패드'와 기저귀, 물티슈 등 유아용 위생용품까지 전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단다.

또한 2003년부터 시행된 주부모니터단 제도를 통해 주부들의 의견을 직접 제품 개발에 반영하며 다각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영근 이사

고객만족!  
언제나 우리가 앞장섭니다.

박수경 과장

마케팅본부 아자아자! 화이팅!

김정중 차장

마케팅본부  
내일로 전진합니다.

조은혜 주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이승신 과장

더 좋은 제품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윤진아 과장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마케팅본부!

### 화목한 팀분위기의 비결은 문화회식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아무래도 남성직원보다 여성직원의 수가 더 많다. 그래서인지 부서 분위기 또한 여성친화적인 문화를 자랑한다. 삼겹살에 소주로 회식을 하는 여느 부서와 달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회식을 즐긴다고, 가끔 마케팅본부 식구 전체가 퇴근 후, 함께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활동을 통해 팀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케팅본부

마케팅본부의 업무 이야기는 밖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남녀직원 모두 여성의 '그날'에 대해 업무상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하는데, 가끔 지하철이나 회식자리 등 공공자리에서 생리통이 어땠고, 생리대 흡수력이 어떻다는 등 민감한 내용을 거침 없이 쏟아내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단다. 한번 웃고 넘어갈 소소한 일들이지만 그만큼 회사 밖에서나 일상에서나 제품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마케팅 본부의 열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바로 마케팅본부의 DNA이자 강점이 바로 이 열정이 아닐까.

### 더 넓은 시장으로 달려나가자

제품 관련 부서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는 마케팅본부가 또 하나의 꿈을 키우고 있다. 바로 웰크론헬스케어가 신규사업으로 화장품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과 기대감으로 마케팅본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 흔히 담긴 상품기획, 전략적인 시장개척'이라는 슬로건을 무기삼아 힘차게 전진할 각오가 돼있는 마케팅본부다.

황재원 과장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김현길 사원

더 큰 목표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부9단의 내공을 보여주마!

## 우리는 주부모니터단이에요!!

웰크론의 침구와 웰크론헬스케어의 여성용품 등은 제품의 특성상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매일같이 이불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며, 여성의 민감한 피부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솔직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주부9단의 숙련된 내공으로 제품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주부모니터단이다.



만져보고 살펴보고,  
주부9단의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가 이어진다.



### 엄마와 여자의 장점을 모두 살린 주부들의 파워

크리슈머(Cresumer), 프로슈머(Prosumer)라는 신조어가 탄생될만큼 제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의 생산자가 되어 똑똑한 소비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흐름에 맞춰 2003년, 웰크론은 침구를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자 주부모니터단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현재는 회를 거듭해 21기 주부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웰크론과 웰크론헬스케어에서 개발 중이거나 출시된 제품의 테스트와 온·오프라인 시장조사를 통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나 홍보 아이디어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또 방송, 광고 모니터링, 디자인 평가 등에 대해 매주 주어지는 다양한 과제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테스트한다.

### 주부님들,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주부모니터단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모니터 회의 시간에 그 역할이 더욱 빛난다. 특히 이날은 최근 웰크론에서 출시한 음이온 침구와 웰크론헬스케어 브랜드 예지미인의 숲속이야기 텐설 생리대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주부모니터단은 타사 음이온 침구와 비교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숲속이야기 텐설 생리대의 사용 후기를 공유하며 개선사항을 꼼꼼히 지적하기도 했다. 집에서의 살림 솜씨를 십분 발휘해 가격과 제품의 질, 불편한 점, 좋았던 점 등 사용후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의견을 쏟아낸다. 아줌마들의 수다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이고 냉철한 분석도 이어진다. 또한 주부모니터단은 제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개진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소비자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주부모니터단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웰크론 '고객감사 창고대개방전' 현장

# 고객사랑에 보답하는 우리는 웰크론입니다



지난달 웰크론그룹 본사 앞마당이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바로 웰크론그룹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고객감사 창고대개방전'을 진행한 것이다. 지난 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행사장이 후끈후끈

행사 첫날에는 비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의 고객들로 행사장은 개장 시간 전부터 붐볐다. 심지어 창고대개방전 행사 소식을 접하고 지방에서 상경한 고객들도 있어, 택배접수처에는 구매한 상품을 각 지역으로 보내려 는 고객들로 긴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반짝 타임세일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고객들이 모여들어 채 5분 이 되기도 전에 준비한 제품이 모두 소진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상품을 구매하는데 성공한 고객들의 환호와, 간발의 차로 구매하지 못한 고객들의 아쉬운 탄성이 어우러져 행사장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5일 동안 본사 로비는 누구보다 먼 저 좋은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로 앓을 자리조차 없었다는 후문이다.

## 또 한번 빛난 웰크론의 단결력 아자아자!

이번 행사를 위한 웰크론 및 웰크론헬스케어 전 임직원과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 경영지원파트 임직원들의 숨은 노력도 빛났다. 각자 의 역할을 분배해 고객을 안내하고, 판매부터 계산, 포장까지 도맡으며 맡은 업무를 거뜬히 해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했음에도 불 구하고 서로 격려하며 행사지원에 힘을 보탰고, 고객들과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인 들을 통한 판매가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등 4개사 전 임직원의 강한 단결력이 입증됐다.



## 고객들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부했던 행운권 추첨이 4월 30일 웰크론그룹 본사에 위치한 세사타운에서 진행됐다. 1등 당첨자에게는 드럼세탁기, 2등과 3등 당첨자에게는 침대커 버 세트, 그 외 20여 명에게는 알리지방지 차렵이불을 선물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행운권 투입함은 공 간이 부족할 만큼 가득 차있었다. 웰크론 이경주 사장은 신중 한 손길로 행운권을 뽑아 그 안에 적힌 당첨자들의 이름을 불 랐고,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은 자신이 당첨된 듯 기뻐하며 박 수를 보냈다. 5월 10일 진행된 경품 전달식에는 1등으로 선정 된 하소영 고객 외 30여 명의 당첨자들이 참여했다. 당첨자들은 경품을 전달받을 때마다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서로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등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 "고객사랑에 보답하는 웰크론그룹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 내가 믿으니까 고객들에게도 자신있게 권합니다

조금은 늦은 오전, 이은영 대표는 어지러진 매장을 말끔히 정돈 중이었다. 이은영 대표의 친절한 미소와 믿음직스런 인상때문에 동네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세사리빙 인천검단점. 그 명성을 입증하듯 전날 밤 늦게까지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초보 사업가에서 어느덧 천여 명이 넘는 고객리스트를 확보한 숨은 고수, 이은영 대표를 인천검단점에서 만났다.



이 세사리빙 인천검단점

## 이불가게보단 동네 사랑방

인천검단점의 이은영 대표는 세사리빙을 만나기 전까지 바깥 일은 해본적도 없고 교회일만 하던 평범한 주부였다. 그러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사업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불사업은 생각도 않았었다. “그때는 세사리빙 이불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소개로 먼지가 안나는 이불이 있다는 걸 알고는 이거다 싶었죠. 제가 비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웰크론과 인연이 되어 대리점을 오픈한지 1년 남짓. 주변의 다른 침구브랜드 대리점들과 경쟁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파트 단지 주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야말로 주민들의 사랑방 노릇을 하고 있다.

## 판매 노하우요? 고객들도 일단 써보면 알아요

인천검단점만의 판매 노하우는 고객들에게 꼭 비싼 침구세트만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베개솜이나 커버 등 작고 저렴한 것부터 소개하는 것이다. 일단 한번 사용해보면 다시 세사리빙을 찾게될 것이라는 이 대표의 확신에 찬 태도에 고객들도 믿고 구매를 한다고. 그래서 인천검단점은 생활제품인 카페트부터 키즈 침구 세트까지 전 제품이 골고루 인기가 좋다. “제가 먼저 써보고 좋으니까 그만큼 자신있게 고객들한테 권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고객들도 저를 믿고서 사용해 보시고는 얼마 안가 온 집안의 침구세트를 바꾸러 오시더라고요.” 장사꾼의 마음이 아닌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고객 한분 한분 정성으로 맞이하는 이은영 대표는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다행이란다. 앞으로도 고객들의 수다소리가 끊이지 않을 인천검단점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02 세사 경기점



김미녀 매니저

# 한번 고객이 영원한 단골이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입점과 함께 올해 벌써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사 경기점.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사용해 보고 그 느낌을 고객들에게 전하려 노력하는 김미녀 매니저의 진심이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아들은 비염, 딸은 아토피로 고생하다보니 판매사원이 아닌 엄마의 입장에서 고객을 맞습니다. 또 자녀의 나이나 취미 등 고객의 사소한 특징까지 기억해 둔 것이 고객을 감동시키고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특성상 재방문하는 고객들이 많아 제품 설명에 주력하기보다 고객과의 개인적인 관계구축으로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세사 경기점의 판매 전략이다. “항상 고객들에게 감사합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이를 위해 손수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조연도 해주십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자리를 지키며 고객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세사리빙 대리점을 부탁해 ~ 대리점과 함께하는 상생 프로그램



세사리빙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매장이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본사 직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상권 및 판매현황을 분석하고, 점주와의 컨설팅을 통해 SP(Sales Promotion) 전문인력을 해당 매장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해당매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해 침구 컨셉별 상품군 재배치 및 상품진열에 변화를 주는 등 점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세사리빙은 매장별 부진재고를 파악해 할인행사 및 홍보행사를 기획하고, 부진재고 소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대리점은 행사진행을 위한 전단지제작, 사은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지점은 세사리빙의 지원제도를 통해 10일간 약 3,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웰크론글로벌비나 개업식 현장

## 웰크론, 세계를 무대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다!



웰크론은 지난 1월 11일 베트남 호치민 룡탄에서 '웰크론글로벌비나' 공장 개업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날 개업식에는 이영규 회장을 비롯해 웰크론 이경주 사장, 웰크론강원 손기태 부사장, 웰크론한텍 이기창 부사장 등 웰크론그룹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판 민 폭 동나이 부성장, 오재학 호치민 총영사, 김재우 코참 회장, 허병희 코트라 관장 등 호치민시 정부관계자 및 호치민 주재 대한민국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웰크론의 베트남 첫 공장설립을 축하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웰크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업식은 시작 한 시간 전부터 행사장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식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는 현지인들 덕분에 화려한 불빛이 행사장을 채우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베트남 현지언론에서도 웰크론의 첫번째 해외생산거점 마련에 주목하며 개업식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영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시기에 베트남에 진출해 양국발전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웰크론은 글로벌 비나 설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에서는 투자유치와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웰크론글로벌비나는 연면적 4,200㎡(12,705평)규모로 현재 2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00,000장 이상의 침구와 연간 2,400만장 이상의 극세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웰크론 **정성식** 상무 가족

## 바람 따라 물길 따라 달리는 신나는 자전거 여행



여름이 조금이라도 일찍 올까 시가하듯 갑작스런 봄비가 내렸다. 시원하게 한차례 퍼붓더니 이내 맑은 하늘이 얼굴을 비춘다. 이렇게 좋은 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 하다는 정성식 상무 가족이 경인아라뱃길로 자전거 하이킹을 나왔다. 지치지 않는 무한체력을 가진 그들의 나들이를 따라가 보자.

### 우리가족은 스포츠 마니아

웰크론 재경본부와 웰크론한텍 경영기획본부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정성식 상무는 겸임을 하고 있다 보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바쁜 업무와 회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붓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회사를 잘 경영하고 이끄는 멘토로서의 역할만큼이나 가정에서도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인아라뱃길로 자전거 하이킹을 떠나기 전에 자전거부터 대여했다. 엄마 아빠가 자전거를 고르는 사이, 그새를 못 참고 대여점 주변을 먼저 몇 바퀴 돌아보는 큰 아들 형빈이와 귀여운 막내 딸 세빈이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이라는데 키가 또래 아이들보다 부족 크다 했더니 둘 다 스포츠에 만능이라고, 평소 정성식 상무가 운동을 좋아해 야구, 축구, 수영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게되면서 온가족이 자연스럽게 스포츠맨이 되었다. 종종 광명교 안양천 길을 따라 한강 선유도 공원까지 자전거를 타는데 어른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코스지만 두 아이에겐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 귀여운 악동남매가 떴다

학교에서 가장 선배인 6학년 형빈이와 귀여운 막내 3학년 세빈이. 여느 남매들처럼 티격태격하지만 예쁜 막내 동생 챙기는 건 역시 의젓한 오빠뿐이다. 형빈이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사춘기 소년. 그래서 어릴 때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스포츠와 연예인 등 관심분야가 부쩍 많아졌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해피바이러스를 뿜어내는 막내 세빈이는 제2의 피겨퀸을 꿈꾸며 열심히 피겨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는 어린나이에 벌써부터 꿈을 가꾸어 나가는 세빈이가 대견하다.



항상 고민하는 그것,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아무지고 예쁜 아이들이지만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 정성식 상무 부부 역시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순하던 형빈이가 4학년이 될 즈음 자기주장도 세지고 반항도 늘은 것. “처음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변화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모교육 강좌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이해하고 노력하려 애썼죠.” 그렇게 내린 결론은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스포츠와 연예계에 관심을 보이던 형빈이가 연예기획사 대표가 되겠다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된다’며 아이들을 설득하거나 혼냈겠지만 지금은 그저 믿고 기다린다. 부모의 기준과 잣대로 아이들의 꿈을 함부로 망치기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놀이공원가는 것도 좋아요.  
아빠랑 하면 뭐든 다 좋아요.”

언제나 내 옆에 있을 동반자

아이들 문제를 엄마인 아내 미숙 씨 혼자서 고민했다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옆에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는 남편이 있기에 아내 이미숙 씨는 마음이 놓인다. 정성식 상무 부부는 서로의 친구를 통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닮은 외모로 ‘남매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둘 다 이성교제에는 서툴러서인지 푹푹하게 연애하다 2년 만에 결혼하게 됐다. “농사를 짓는 시택으로 시집과 틈만 나면 시택 농사일을 도와야 했던 아내가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집안일까지 씩씩하게 해내는 걸 보며 그저 고맙고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식 상무가 추천하는  
여름휴가지 BEST 3

- 1. 바다위의 보물섬, 울릉도  
천혜의 비경이 펼쳐진 울릉도에서 여유롭게 바다냄새 맡으며 섬 한바퀴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런지. 독도전망대와 케이불카를 비롯해 해안산책로, 봉래폭포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여행참고사이트 [www.ulleung.go.kr/tour](http://www.ulleung.go.kr/tour)
- 2. 힐링의 시간, 남해편백자연휴양림  
해발고도 400m 휴양림 입구부터 편백나무가 뽕뽕하게 차 있다. 소나무의 4배 이상의 피톤치드를 내뿜는 숲속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힐링테라피다.  
여행참고사이트 [www.huyang.go.kr](http://www.huyang.go.kr)
- 3. 다채로운 볼거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녹색 생태도시를 꿈꾸는 순천에서 10월 20일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 각국의 정원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테마공원과 각종 예술품들, 생태공원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여행참고사이트 [www.2013expo.or.kr](http://www.2013expo.or.kr)



경인아라뱃길 김포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두리생태공원까지 왕복 14km를 달렸다. 엄마 아빠도 부지런히 힘을 내보지만 저만치 땀하고 달아나는 막내 세빈이를 따라 잡기는 역부족이다. 그런 세빈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정성식 상무는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으면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내에게겐 따뜻하고 든직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단다. 더불어 주위에까지 활기를 불어 넣는 엔돌핀이 되고 싶다며 다시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 그룹미래전략본부, 웰크론그룹의 미래를 밝힌다!

지난 2월, 웰크론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해외시장개척의 선봉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그룹미래전략본부는 각 사의 주요 사업분야를 아우르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 남미의 콜롬비아에 JVC(Joint Venture Company) 설립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룹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탄복, 수처리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1 웰크론그룹은 중견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인 SPE와 MOU를 체결했다.
- 2 이영규 회장(첫 번째줄 오른쪽)이 데저트블루사와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3 에너지유통기업 인테그레이티드사와 국내 및 중국 시장의 산업용 플랜트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WELCRON**



###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웰크론그룹 미래전략본부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수주 및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플랜트관련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치안 안정이 시급한 남미지역의 콜롬비아에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플랜트를 수주하고 웰크론그룹의 제품군을 수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프로젝트 수주율 1위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 신뢰를 쌓고 기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예산으로 지방 자치 사업(환경 관련 프로젝트 포함) 96억 달러, 수자원 관련 사업 60억 달러의 투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웰크론그룹이 진출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웰크론그룹은 중동 진출의 후발주자이지만 그룹미래전략본부의 주도하에 담수화 플랜트의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소형 담수화 플랜트 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는 환경분야 플랜트(Waste to Energy 등) 프로젝트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한편 콜롬비아는 포스트 브릭스(Post BRICs) 신흥시장 6개국을 지칭하는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의 일원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해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다. 외교적으로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 참전국으로 오랜 시간 혈맹 관계를 맺어 왔고, 2012년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콜롬비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양국은 우호관계를 활용해 탄약, 레이더 등 방산 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웰크론은 콜롬비아 공군에 방탄판을 공급하기도 했다.

그룹미래전략본부는 또한 콜롬비아 정부가 향후 10년간 55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 시장에 웰크론그룹 4개사를 진출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미시장 동향을 철저히 분석·연구해 웰크론그룹의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웰크론그룹 미래전략본부 임직원들





웰크론강원 신축 기숙사 탐방

## 웰크론강원의 따끈따끈 러브하우스 둘러보기



### 웰크론강원, 사원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다

지난 2월, 웰크론강원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위한 기숙사가 신축됐다. 그동안 웰크론강원의 사원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걱정이 앞섰다. 공장이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물론 기존 발안공장 사무실동 3층에는 기숙사가 마련돼 있었지만 신규 입사자들을 추가로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회사에서는 장거리 출퇴근 사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러브하우스를 신축했다. 이곳에서 사원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해 자기 계발에도 힘쓸 수 있고 충분한 휴식으로 업무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발안공장과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숙사는 총 342㎡(약 103평) 대지에 204.12㎡(약 60평) 규모로 신축됐다. 깔끔한 상아색 건물 1층에는 널찍한 주차장이 있고, 외벽 통유리를 통해 따뜻한 햇살이 듬뿍 들어온다. 현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서면 왼쪽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방 겸 거실이 있고, 사원들은 통유리를 통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 복도를 따라가면 총 7개의 침실과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이 마련돼있다. 또 계단을 오르면 세탁실과 옥상이 있어 세탁 후 세탁물을 옥상에 널어 바람에 자연 건조시킬 수 있다. 현재 이곳은 12명의 사원들이 함께 지내고 있으며 퇴근 후 여가시간을 갖기도 하고 선배사원과 업무적 교류를 하기도 한다.

### Interview

웰크론강원 생산공사본부 생산팀 **채승연** 사원

기숙사에서 동료 사원들과 지낸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회사와 가깝다보니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다음날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무척 좋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 매일 마주치며 야구도 보고 야식도 먹다보니 많이 친해졌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 기숙사에 필요한 것이나 개선할 점이 있을 때 사원들끼리 회의를 통해 건의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이상윤 고객님의 세사리빙 음이온 침구 체험 후기

# 세사리빙 음이온 침구를 만난 후 알았습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 참말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아쉬운 마음으로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생활에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시장에 다녀오거나 학부모 모임을 잠깐 다녀와도 피로감 때문에 꼭 낮잠을 자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낮잠을 즐기는 대신 오후에 함께 운동을 하자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미루기 일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의 친구를 만나 세사리빙의 음이온 침구를 사용해 볼 것을 적극 권했습니다. 제가 음이온 침구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 고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린 세사리빙

이른 새벽 4시 30분부터 활동을 시작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제게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바로 피로감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음이온 침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저의 생활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15일 정도가 경과하자 젖은 빨래처럼 온몸을 처지게 만들었던 피로감이 덜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숙면을 취해서인지 오후에도 크게 피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마른 체구를 가진 아내는 5월 초까지 내복이나 얇은 옷을 한 겹 더 걸치고 자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가벼운 잠옷을 입고 잠이 듭니다. 사용 일주일째에는 늘 신고 자던 수면 양말을 벗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많은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는 업무관계로 에너지 소모량도 엄청난 테도, 몸을 누이면 지난 하루가 떠올라 이런 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잠을 청하는데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음이온 침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어떤 날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금방 잠에 빠져들어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몸속의 비타민이라는  
음이온 덕분인지 아침이 상쾌해요”

음이온 침구를 권해드린 아내의 친구분도 요새 숙면을 취해서인지 피로가 훨씬 덜하다고 놀라며 주변에 많이 소개해야겠다고 합니다. 이제 침구는 그저 추위를 지켜주는 수단이 아니라 편안한 수면을 만들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수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친환경의 건강 침구, 아름다운 패션 침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세사리빙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 사계절 내내 만족스러운 음이온 침구

막상 음이온 침구세트를 사용하려고 보니, 극세사 제품이라 덥고 무거워 초여름에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구가 매우 가볍다는 점에 놀랐으며, 몸에 닿는 촉감이 보송보송하면서도 매끄러워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제가 사는 대전도 기온이 몹시 올라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기성이 좋아서인지 음이온 이불을 덮고 자면서 ‘덥다’고 생각해보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온기에 기분 좋게 잠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기능과 디자인은 무시하고 오로지 싼 이불만을 고집하며 사용하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차와 옷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들어 저는 건강한 침구에 투자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부쩍 들고 있습니다. 세사리빙 침구를 사용하며 ‘잠이 보약’이라는 점이 크게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4.1 부동산 대책,  
제대로 판단해야 성공한다

주택 공급은 짧게는 2~3년, 길면 5~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때 가장 유념해야 할 내용은 앞으로 어느 지역, 얼마만큼의 주택 공급이 될지를 알아야 한다. 주택에 투자하려면 주택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정책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이하 4.1대책)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서서히 생기고 있는 것이다. 세금, 공급, 금융 등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만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따져봐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항목	내용
공공주택 공급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공분양주택의 물량 기준 연 7만호에서 2만호 이하로 축소</li><li>2013~2017년 연간 신규 인허가 물량 1만호 수준으로 관리</li><li>수도권 그린벨트 안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기존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 조정</li></ul>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올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면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85㎡ 이하 주택 구입 시</li></ul></li><li>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은행 자율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 완화</li><li>국민주택기금 올해 지원규모 2.5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li></ul>
주택구매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내 매매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9억 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 및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 9억 원 이하 기존주택 구입 시</li></ul></li><li>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li><li>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li></ul>
과도한 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등 신축적 운영 법개정 추진</li><li>국민불편 가중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li><li>계획입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li></ul>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택지비 부담 완화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추진</li><li>임대주택 리츠, 펀드 활용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li><li>'준 공공임대주택' 신설해 세제혜택 부여</li></ul>



주거복지 지원방안		
분야	항목	내용
하우스푸어 지원	채무조정활성화	▪ 자산관리공사 통한 부실채권 매입 및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 도입
	임대주택리츠 도입	▪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고 5년간 임차 생활 보장
렌트푸어 지원	집주인 담보대출제 전세 도입	▪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내주고, 임차인은 이자를 갚는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전세 도입	▪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임차인에게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공급	▪ 임대주택 7만호, 매입, 전세방식 4만호 연내 공급
	행복주택 5년 간 20만호 공급	▪ 철도부지 등 도심 내 공공보유 토지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도입	▪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지원대상, 지원액 강화)

주택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택 정책을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자. 첫째, 수요 또는 공급 측면에서 확대 또는 억제 정책인지를 판단해 향후 시장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1대책은 침체된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요 확대 정책이다. 하지만 동일한 정책이라도 어떤 지역에는 수요 억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 향후 정책 효과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시행 시기나 공급 형태나 규모를 살펴보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재산, 직장의 위치, 자녀의 학교 등을 고려해 내 집 마련용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해 봐야 한다. 만약 분양받는 것이라면, 당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다.

셋째, 장기간 지속될 정책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성이 높은 정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시장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고, 과거에 검증된 정책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결국 시장에서 공감을 얻어야 정책이 오래갈 수 있고 과거 오랫동안 유지된 정책일 경우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 4.1대책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지역을 선택한 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Q & A



1.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조건이 확실히 정해진 것인가요?

5월 7일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이 됐고요. 특징적인 것은 흔히 '애프터 리방' 이라고 알려진 분양 조건부 전세 아파트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동안 분양조건부 전세 아파트는 임차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미분양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됐죠.

2.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손쉽게 찾는 방법은 '부동산114'와 같은 정보업체의 분양색션으로 가셔서 현재 분양중이거나 미분양 단지를 지역별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믿기 보다는 현장에 전화하셔서 조건이나 남아있는 물량 등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미분양 혜택 등은 기존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홍보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미분양 아파트 주의점은요?

▶ **잘만** 고르면 세금혜택도 받고 여러 혜택을 챙길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이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남아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만큼 미분양이 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격 때문인지, 입지 때문인지 파악하시고요. 특히 미분양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웰크론그룹, 공채 1기 신입사원 30명 선발



웰크론그룹이 지난 2월 2일 '2013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공채 1기 신입사원 30명을 선발했다. 이번 공채에는 30명 모집에 총 1,250여 명이 몰려 약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합격자는 1차 실무면접, 인·적성검사, 2차 임원면접의 3단계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이번 공개채용은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웰크론,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 웰크론헬스케어 4개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그룹 출범후 처음으로 기획됐다. 선발된 인원은 관리·영업·기술·연구·설계·생산 등 전 부문에 고루 배치됐다. 한편 웰크론그룹은 선발된 신입사원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3일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신입사원 연수교육에서는 ▲웰크론그룹 이영규회장 특별강연 ▲그룹사 소개 ▲신입사원 비즈니스 매너 ▲조직의 이해와 역할 등의 기본 소양 교육을 비롯해 ▲체육활동 ▲화합의 시간 ▲가족사 공장 견학 등의 애사심 함양 교육 순으로 3일 동안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각 가족사의 공장을 순회 견학하며 각 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 웰크론그룹, 저개발국에 2억 원 상당 예지미인 여성용품 지원



웰크론그룹이 시리아 난민캠프 및 저개발국 여성들에게 총 2억 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웰크론그룹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저개발국 여성을 돕기 위한 위생용품 전달식을 갖고, 자회사인 웰크론헬스케어의 한방여성용품 브랜드 예지미인 약 2,200여 박스를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피플에 전달했다. 이 중 약 800박스는 시리아 난민캠프에 발송했고, 나머지 1,400여 박스는 지구촌 곳곳의 재난현장과 저개발국가의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활동은 굿피플과 웰크론그룹이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웰크론그룹은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을 비롯한 저개발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 현재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하루 평균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60만명이 넘는 난민이 열악한 환경과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숙곳, 생리대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구할 수 없어, 외부의 구호물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웰크론 방검부력조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로 선정



웰크론의 방검부력조끼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개발 과제로 선정됐다고 5월 13일 발표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가 구매 의사를 미리 밝히고 기술 개발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웰크론의 방검부력조끼가 개발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판매 독점권을 확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검부력조끼 개발 건은 해양경찰 등 국내 방호복 시장의 수요증가를 반영해 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웰크론은 고성능·저중량의 방검부력조끼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준비성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 웰크론은 양날검(S)과 송곳 등을 막아내던 기존 방검복 대비, 양날검은 물론 한날검(P)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방검 성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량 3.0Kg 이하를 유지하고 방수기능을 25%가량 향상시키는 등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방검부력조끼를 개발할 예정이다.

## 웰크론, 세사리빙 우수대리점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웰크론의 친환경 기능성침구 브랜드 '세사리빙'은 우수대리점을 초청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세사리빙 브랜드 런칭 2주년을 기념해, 우수 대리점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리점주들의 사기를 함양하고, 해외 유통문화를 체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140여 개 대리점 중 우수한 판매실적을 올린 12개 대리점 16명과 영업소장 6명 등 22명을 대상으로 1월 20일(일)~24(목)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태국에서 진행됐다. 특히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 태국매장을 비롯해 고급 인테리어 소품을 취급하는 메가바나 인테리어 매장, 인텍스 매장 등 태국의 유명 쇼핑센터를 견학하고 선진 유통문화를 체험했고, 파타야의 관광명소와 산호섬 해변관광, 태국 코끼리 트래킹 체험, 수상시장 방문 등 태국 문화를 체험했다.

## 친환경 침실전문점 세사리빙 150호점 돌파

웰크론이 친환경 침실전문점 세사리빙(SESA Living) 대리점이 지난 3월 11일 150호점을 돌파했다. 세사리빙은 고밀도 마이크로화이버(Microfiber, 극세사)로 만든 알라지방지 침구를 주력 아이템으로 2011년 기능성 침구 시장에 진출했다. 세사리빙은 브랜드 런칭 2년 만에 150호점 오픈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게 됐으며 현재 159개점이 운영되고 있다. 세사리빙은 이 여세를 몰아 올해 200개 매장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 웰크론글로벌비나 체육대회 진행



웰크론글로벌비나가 지난 5월 25일 웰크론 창립 2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현지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봉제동과 편직동에서 근무하는 사우들 간의 축구시합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직원들의 열띤 응원전도 펼쳐져 또 하나의 불가리를 더했다. 이날 폭우 속에서 봉제팀은 편직팀을 10으로 누르며 우승을 차지했고 백만동의 포상금을 수여 받았다. 웰크론글로벌비나는 지난 1월 11일 개업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현재 약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News

## 웰크론강원, 남미 볼리비아에 첫 수관식 보일러 수출

웰크론강원이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수관식 보일러를 수주했다고 지난 5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보일러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YPFB)로부터 수주해 볼리비아 코차밤바(Cochabamba)주의 엔트레 리오스(Entre Rios)시에 건설 중인 암모니아 요소 플랜트 공장에 설치될 고압의 수관식 보일러다. 볼리비아 YPFB 프로젝트는 하루 2100톤 규모의 요소 비료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웰크론강원은 시간당 66톤의 스팀을 생산하는 보조 보일러 2기를 납품할 예정이다. 웰크론강원은 지난해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알루미늄 생산시설에 설치될 226톤 규모의 대형 수관식 보일러 4기를 납품, 대형 보일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이번 보조 보일러는 내년 3월 3일까지 선적을 완료하고 5월 경부터 볼리비아 현장에서 본격적인 설치 공사가 시작된다. 웰크론강원은 볼리비아 현장에 플랜트 전문 엔지니어를 파견해 현장 설치와 시운전 전반에 대한 감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웰크론한텍 1분기 매출 264억 원, 7분기 연속 최대 실적 경신

웰크론한텍은 1분기 매출액 264억 원을 기록하며 7분기 연속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웰크론한텍은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13.8% 증가한 26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36.1% 증가한 27억 원,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6.0% 증가한 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3분기 이래 7분기째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기록이다. 웰크론한텍은 지난 2011년 3분기에 매출액 101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후 2012년 2분기에 150억 원을 돌파한 18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5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웰크론한텍의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은 2011년부터 늘어난 수주가 주요 원인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절감 효율이 높은 농축설비 부문의 수주가 크게 증가했고, 유음료 업체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식품제약 설비부문의 매출도 크게 상승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단계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폐수처리 설비의 신규 수주도 확대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플랜트 종합 건설 부문에서도 현재까지 323억 원의 수주실적을 거두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 웰크론한텍, 146억 원 규모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수주



웰크론한텍이 146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지난 4월 30일 발표했다. 창세기개발이 발주한 이번 오포CS물류센터 신축 공사의 계약금액은 전년 연결 기준 매출액 1,829억 원 대비 8.0%에 해당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 광주시에 건설될 연면적 약 26,559㎡(8,034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물류센터 신축공사로 공사 완료일은 2014년 4월 13일이다. 웰크론한텍은 지난해 ENC(Engineering & Construction)사업부를 신설, 플랜트 종합건설 시장에 진출했다. 설비사업과 건설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EPC 기업으로서, 중소규모의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플랜트 EPC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 웰크론한텍, 최대 실적 달성으로 신용등급 'A-' 상향

웰크론한텍은 나이스디앤비가 발표한 기업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신용평가기관 이크레디블에서 받은 BBB등급에서 두 단계 상향된 평가결과로, 웰크론한텍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과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나이스디앤비는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수주에 따른 매출 성장과 수익성 유지 ▲순이익 증가에 따른 내부 유보금 확보 ▲부채비율 45%, 차입금의존도 1.9% 등 양호한 재무 안정성 등을 웰크론한텍의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꼽았다. 나이스디앤비의 기업신용평가서비스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현황 및 상거래 위험도를 측정해 11개 등급(AAA, AA, A, BBB, BB, B, CCC, CC, C, D, NG)으로 구분한 신용평가 서비스다. 평가등급 A-는 상거래 신뢰도에서 우위가 인정되는 기업에게 주는 평가등급으로 업계 상위 20%만이 A-이상의 등급을 부여 받고 있다. 나이스디앤비 기준 업계평균은 BB등급이다.

## 웰크론한텍, 추자도에 국내 최대 도서지역 해수담수시설 준공



웰크론한텍이 제주도 인근 추자도(島)에 해수담수시설 공사를 완공하고 가동해 들어갔다고 지난 1월 2일 밝혔다. 이번 준공을 계기로 웰크론한텍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먹는물' 문제가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80곳의 도서지역에 담수화 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이나마도 대부분 해변에 심장을 파서 염지하수(육지 지하 임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해수와 담수가 혼합된 지하수)를 담수화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고, 해수를 직접 끌어와 담수화하는 시설은 추자도를 비롯해, 육도(1일 30톤 규모), 죽도(1일 30톤 규모)에서만 사용되어 왔다.

이번 추자도 해수담수 설비는 대부분의 도서지역 해수담수설비에 사용하는 모래 여과기를 대체해 막여과(MF Membrane) 공법의 전처리 설비를 사용해 대용량의 해수를 담수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완공된 고도정수설비도 간단한 세척만으로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중공사 타입의 마이크로 필터(MF)가 사용되어, 빗물도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예지미인 휴대용 '좌훈쑹찜질패드', 임상실험결과 혈액순환 개선효과 높아

예지미인의 휴대용 좌훈패드, '좌훈쑹찜질패드 오가닉코튼' 착용시 혈액순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3월 4일 밝혔다. 웰크론헬스케어는 가천대 바이오헬스솔루션 R&S사업단과 공동으로 (주)파인케이 피부임상연구센터에서 30~55세 성인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좌훈쑹찜질패드 오가닉코튼'의 혈행 개선에 대한 인체효능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좌훈쑹찜질패드 오가닉코튼'을 사용한 피실험자의 하복부 피부온도는 평균 1.69℃ 증가했으며, 하복부 혈류량은 제품 사용 3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꾸준히 상승해 혈류량 개선율이 사용 전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등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보였다. '좌훈쑹찜질패드 오가닉코튼'이 혈액순환 개선의 효과를 얻은 이유는 한방 훈증효과가 착용자의 체온을 높일 뿐 아니라, 혈관확장을 촉진해 혈류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품은 유기농 순면커버를 사용해 피부 자극 없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안정성 평가결과 조사됐다. 이번 임상실험은 웰크론헬스케어가 강화도 특산물인 '사자발쑹'을 이용한 '좌훈쑹찜질패드'를 개발함으로써 지식경제부와 인천시·강화군이 지원하는 '강화 특화 헬스케어 소재의 글로벌제품화 육성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진행됐다.



## Q 사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제2회 창고대개방 행사에 참여한 후 웰크론인이 발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내 모습도 찍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지 못했던 기업의 소소한 이야기,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날로 변창하는 웰크론그룹의 소식을 충실하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 수원시 정안구 정자동 **서정진** 님

\* 웰크론그룹 사보는 인터넷 기사에서 회사소식을 접하는 것과는 다른 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웰크론그룹에 대한 정보만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알차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회사 행사, 동아리 활동 등의 모습을 통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번 사보에서는 그룹사 직원들의 회사생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매번 사보가 기다려지네요.

—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김민혜** 님

\* 웰크론인을 손꼽아 기다리는 1인입니다. 웰크론그룹에 관심이 많아 웰크론인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고, 직원 분들의 사람 냄새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웰크론인에서는 웰크론그룹 임직원은 아니지만, 저처럼 웰크론그룹을 응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독자들과 웰크론그룹이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송이** 님

\* 웰크론그룹 사보를 읽다 보면, 제가 웰크론그룹 직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사의 소소한 소식들을 잘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사진에 담긴 직원분들과 직원 가족분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웰크론그룹의 미래도 그만큼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보를 통해 즐거운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경남 진주시 신안동 **김정아** 님



Quiz 정답 및 독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총 10분을 추첨하여 8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예지미인의 좌훈 쑥 ☐☐☐☐임상실협결과 혈액순환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새 웰크론그룹 사보 웰크론인이 4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네 살 아이들을 미운 네 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웰크론인은 마음으로 낳은 사랑스런 네 살 배기 아이와 같습니다. 물론, 독자여러분께 알차고 풍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자 애써왔음에도 늘 뭔가 아쉽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따뜻한 봄날, 신나게 걷고 뛰는 어린 아이처럼 웰크론인도 더욱 밝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맥내에도 행복하고 설레는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웰크론인이 기대되는' 웰크론인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웰크론그룹 홍보IR팀\(pr@welcron.com\)](mailto:pr@welcron.com)



## “우리는 웰크론의 보안요원입니다”



혹시 공인인증서를 PC에 저장하셨나요?  
홈페이지 비밀번호는 몇 년째 그대로 인가요?  
책상에 컴퓨터를 커둔 채 여유롭게 커피 한 잔 하고 계신가요?

산업기밀 유출 1건당 평균 피해액 규모가 10억 원 이상.  
특히나 기업의 핵심정보는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 직원들에 의한 유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정보' 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우리 웰크론인부터 스스로 지킵시다.  
ERP, 그룹웨어, 기업홈페이지 등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타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으며,  
자리를 비울 때는 컴퓨터 전원을 차단합니다.  
회사내에서는 개인 노트북과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난 방지를 위해 모든 정보기기에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합니다.

한 번 더 살피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나와 회사의 보안을 지키는 우리는 웰크론의 보안요원입니다.



